

☛ 진흥회 동정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품질경영이 우수한 업체의 공장방문을 통해 회원사의 품질향상 도모와 기술정보 습득은 물론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유대강화를 위하여 회원사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 50여명으로 방문단(단장: 공창덕 상근부회장)을 구성하여 2박 3일간의 행사일정을 순조롭게 마쳤다.

이번 방문단의 일정은 한국전기연구소 500MVA

단락시험설비센터(의왕), (주)동남물산 안성공장, ABB KOREA 천안공장, (주)우진산전 괴산공장, LG산전(주) 청주공장, 한전 전력연구원 765KV 실증시험장 견학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이번 방문단의 규모는 지난 '92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 이래 최대규모로서 제조물책임(PL)법 시행 예정 및 업체의 제품 품질경쟁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2/4분기 수출촉진대책회의 개최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지난 6월 29일 진흥회의실에서 중전기산업의 무역역조가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코자 2000년도 2/4분기 수출촉진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수출 애

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현황 보고, 최근의 수출·입 동향 분석,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에 따른 우리 업계의 대북 진출방안 및 대북진출 협의체 구성(안), 대북 전력협력사업 추진현황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

제 2 차 산업기술개발자금 지원 신청접수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지난 4월 2000년도 산업기술개발자금(전기부문 시제품개발) 제1차 용자사업자를 선정, 지원한 데 이어 1차 지원 잔액분(62억원)에 대하여 제2차 자금지원대상 사업자를 선

정하기 위하여 개발과제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있다.

동 개발자금은 융자금리가 년 8.0%이며, 융자기간은 8년(3년거치 포함)으로 선정된 업체들은

해당 취급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진흥회에서는 업체의 원활한 개발자금 지원을 위하여 신청서를 수시로 접수할

예정이며 관련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진흥회 홈페이지(www.koema.or.kr)를 이용하면 된다.

취업박람회 참가업체 모집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한국전기신문사와 공동으로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SIEF 2000. 11.14~11.17)의 부대행사로 "전기분야 취업박람회"(11.17)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중전업체와 취업예정자를 연결시키고자 전기공업 관련학과 졸업자의 구인을 희망하는 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통상전시팀」으로 제출하면 되고, 또한 참여업체에 대하여는 진흥회에서 상담실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의 취업박람회 개최는 한국전력공사의 후원으로 기업의 원활한 노동력 수급으로 생산성 향상, 전기관련학과 졸업생들의 취업기회 제공 및 기업의 고급인력 확보로 기술개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국제전기전 행사기간중에 개최되므로 학생들에게는 국내 및 해외의 우수 전기기기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각자의 전공을 살려 조기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실무위원회 개최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2000년 제2차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용자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지난 6월 20일 진흥회 회의실에서 동 기금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12개 과제는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2개 과제는 중복지원여부를 재검토하여 지원키로 결정하였다. 금번의 제2차 기금지원사업은 신명전기(주)의 "중공축 감속기 개발" 등 15개 과제가 신청되어 예년보다 많은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이는 최근 국내 경기회복과 대북 전력사업 기대심리 등에 따른 중전기기 업체의 기술개발 활성화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는 12개 과제 3,583백만원, 검토후 지원 2개 과제 430백만원 등을 지원키로 하였고 이중 기술평가에 의한 무담보대출 희망업체가 12개사로 중소기업의 자체 담보력 부족이 여실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실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향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지원대상업체는 7월 10일부터 기금을 지원 받아 해당 개발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동 기금은 년리 5%로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동남아지역 및 홍콩을 통한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을 위해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홍콩전기전시회(Asian Elenex 2000, 2000.6.13 ~ 6.16)에서 국제전기(주)등 12개사와 한국관을 운영하여 4천만불의 상담실적과 2백만불의 계약성적을 얻었다.

이번 전시회는 전력기기, 조명기기, 보안기기, 공조, 빌딩자동화 등 5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전시되었으며, 홍콩의 중국반환으로 중국시장 진출 선점을 위하여 선진 업체인 ABB, 지멘스, 커민스와 동남아시아 국가 등 총 31개국 566개 업체가 참가하였다.

특히 신소재 기술로 제작한 전자화된 제품과 심플한 디자인 및 소형화된 제품, 인터넷과 통신망을

이용한 전력전자 분야의 원격제어 시스템을 선보여 관련바이어들의 관심이 높아 전력기기가 인터넷 및 통신장비와의 접목 형태로 변천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바이어 분류를 보면 홍콩과 심천지역에 지사를 둔 중국업체가 다수 방문하였으며 철도청, 주택공사, 홍콩도시가스공사 등 관공서 관계자들이 대거 참관하여 방문객의 수준과 관련성이 높아 전체적인 성과는 높았고, 또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중동 등 바이어들이 다수 참관하였으며, 한국업체 제품은 선진제품보다 가격경쟁력 및 제품의 기능 다양화로 현지 바이어들에게 큰 호평을 받는 등 인근 동남아지역의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동경전력 대규모 납품업체 FCI Japan社 진흥회 방문

한국전기공업진흥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일본의 전력기자재 전문 생산업체인 FCI사와 국내 전력기자재 생산업체인 일진전기공업(주), (주) 동남물산, 보성파워텍(주), (주)건화이엔아이, 세명전기공업(주), 비룡전자(주)와의 구매 및 기술이전 등에 대한 상담을 주선하였으며, 상담에 앞서 FCI사 전력사업부 제조부 부장대리 小林正史 등 3명이 진흥회를 공식 방문하여 우리나라 전기업체의 동향과 향후 전망 등을 논의하였으며 또한 진흥

회에서는 FCI사의 요구사항 등을 최대한 협조하여 국내 중전업체가 일본에 진출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일본내 배전용 커넥터 시장점유율 1위인 FCI Japan K.K는 동력전력 납품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로 동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 노하우 등을 한국의 유력기업에 이전, 현지생산 및 조달을 위하여 국내 전력기자재 업체와의 상담을 6월 27일~6월 28일 양일간 KOTRA 바이어 상

담실에서 실시하였다.

특히, 일본전력기자재 업체들의 한국산 전력기자재 구매 확대는 일본 주요 전력회사들이 전기요금 인하 움직임에 따른 원가절감 차원에서 전력기자

재의 대규모 해외조달 계획이 추진중에 있으며, 품질이 우수한 한국의 전력기자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일고 있기 때문이다.

☆ 진흥회 HomePage 운영 ☆

- '99 산업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하고 한전정보네트웍(주)에서 추진한 전력업계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지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월 28일부터 진흥회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전기산업 관련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회원사 및 관련업계의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라며, 이용중 시스템 운영이 불안정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정보조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Homepage : <http://www.koema.or.kr>